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4 인문 '공감'	작성자	枣树 님
------	--------------------	-----	------

[문항 1]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들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있다.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그는 유태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는 유태인의 고통보다 임무 불이행에서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는 아이히만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는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는 비둘기의 본 습성을 정말이지 알고 있으며 차라리 죽지 못함을 원통해하는 비둘기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가)의 아이히만과 (나)의 시적 화자에 비교해 공감의 방향성과 진실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그가 죽음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가며 자신에 대한 뤼카온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아킬레우스 자신과 뤼카온의 공통점인 죽음을 토대로 뤼카온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가)의 아이히만이 유태인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했고 (나)의 화자가 비둘기에 대해 공감을 했다는 **2. 일방적인 방향성만 보이는 것과 달리 공감을 유도하고 시도하는 쌍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의 아킬레우스의 공감은 표면적이면서 진실되지 않은 면을 보이고 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과 뤼카온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면서 뤼카온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왜 비탄에 빠져있는지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그는 뤼카온에 대한 **3. 진정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3. 공감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아킬레우스의 이러한 태도에 현혹되어 공감당한 뤼카온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가)의 아이히만이 자신의 공감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화자가 진실된 공감을 보인 것과 달리 표면적인 공감을 보여주는 거짓된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첨삭 포인트]

1. 우선 발문에서 공감을 정의했는데, 이에 대해 답안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2. 공감을 유도하고,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쌍방향적인 공감인가요?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죽기 싫어하는 감정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생존의 욕구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마저도 죽을 것이니 냉담하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아킬레우스가 공감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비약입니다.
4. 형식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발문에 따라 제시문 (가), (나)와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네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논리가 빈약하거나 서술이 어색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B+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

[문항 2]

공감은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주체가 되어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1. 이러한 공감 과정을 통해 폭력은 종종 정당화 되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을 결과로 낳는 공감은 올바른 공감이 아니며 폭력을 용서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다.

2.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지 못했다. 또한,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던 그가 학살을 자행한 것은 자신의 행동에 주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의 주체는 국가였으며 그는 객체에 머물러있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상상력과 주체성이 결여된 그의 폭력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다르게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주체가 되어 행동한다. 그는 뤼카온이 비탄에 빠져있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복수라는 자신의 결정에 주체가 되어 뤼카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아킬레우스의 상상력과 주체성이 가미된 폭력은 사회적으로 심지어 뤼카온에게 마저도 인정받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주체성이 가미된 공감 능력은 폭력의 정당화를 낳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다)의 아킬레우스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고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행동한다. 워딩턴은 강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대입한다. 이를 통해 그는 강도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그의 주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과가 폭력이었던 아킬레우스와 달리 워딩턴은 공감의 결과로써 용서를 행하는 진정한 공감을 한다. 아킬레우스는 공감 능력을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하였고 그러한 그의 행동은 결국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의 공감은 폭력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결코 옳지 못하며 워딩턴과 같이 공감을 통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참삭 포인트]

1. 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문의 요구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를 제시문에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형식적으로 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그리고 아이히만이 상상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히만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상상이 있었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3. (다)의 아킬레우스와 (라)의 워딩턴에 대한 분석은 탁월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 아킬레우스의 상상과, 워딩턴의 상상이 왜 다른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탁월하구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분석을 했으면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세 요소를 제시문에 대입해 얻어낸 결론이 그래서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1의 지적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1의 지적은 글의 서두에 나올 수가 없고 2, 3, 4문단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없는 맥없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B-

총평

자신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자신이 발문과 제시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